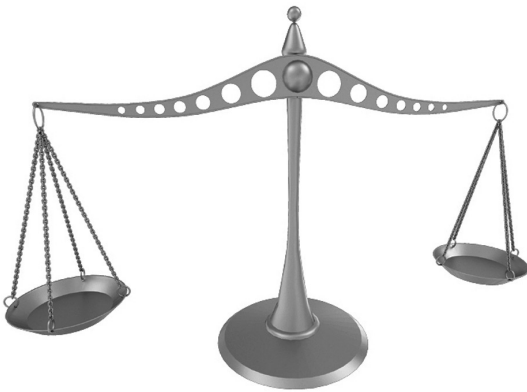


## 우주는 절대 평등

| 김홍호 |

특권의식, 내가 더 낫다는 생각, 우리 종교가 너희 종교보다 우월하고 유일하다는 교만, 이것이 바로 지옥임을 말해줍니다(편집자 주).



유 태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말로 ‘바리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저것과 나를 갈라놓았다는 말입니다. 갈라놓아서 나는 아주 특권계급에 속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너희들은 다 더러운 개들이다, 이것이 바리새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욕한 것은 바리새의 특권계급입니다. 특권까지는 좋으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지옥으로 몰고 가는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옆에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세리가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밖에 있는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것은 자기기만입니다. 속은 아주 썩었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하는 것이 지독합니다. 그건 유태사람 전체에 대한 욕인 것입니다. 유태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욕입니다.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그리하여 이윤이 많이 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살리라고 부자가 되는 거지요. 어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착취하는 부자 너희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는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특권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  
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 속에서 그런 의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며, 일  
반 대중의 제일 잘못은 열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문제입니  
다. 또 지도계급에는 우등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슨 장관이  
된다고 하면 벌써 우쭐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장관이  
되거나 그저 교수이거나 달라지면 안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지,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교수가 되려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  
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사  
랑하라는 것이지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  
도층의 가장 큰 죄는 교만함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업수이 여기는 것, 그런 교만을 깨뜨리는 방법은 결국 고난에  
동참해 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땅  
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 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  
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고쳐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나는 농사를 한 해 지어 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  
었습니다. 논을 갈고 물을 푸고 밭을 매고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왔다  
는 것이 나와 농민들 사이에 굉장한 친밀감을 주었어요. 가깝게 느껴지  
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언제든지 통하게 되는 거  
지요. 아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칫하면 막히게 된다는 것은 남과 통하지  
가 않는 것이지요. 저 혼자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것이 농민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25 때 피난 가서 트럭 운전수를 한 일 년 했습니다. 그것 또한 나

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운전수와 나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차를 타고 다니면 운전수와 내가 상당히 친한데 그것이 평등이라는 것이지요.

난 또 동대문에서 장사를 한번 해 봤어요. 6.25 덕택으로 모두 해봤죠. 동대문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 역시 해보면 압니다. 또 막노동도 해보고 리어카도 끌어 보았어요. 하수도도 고치고, 남의 집에 장판도 놓아주고, 기와도 얹어주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언젠가는 어떤 집에 장판을 놓았는데 풀칠을 해서 붙이려고 하니 주인이 “아니, 물속에 넣지도 않고 풀칠하느냐”고 해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고서 하려니까 제대로 똑바로 되지를 않아요. 대개 5시쯤 끝나고 돌아가야 할 텐데 밤 9시, 10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화가 났는지 밥도 안 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화여대 선생이 됐어요. 그 집이 장관 집이었는데, 내 바로 앞에 앉은 학생이 그 집 딸이었어요. 그 후 어찌다가 길에서 그 어머니와 딸을 만났는데 그때 나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긴, 당연한 거지요.

노동을 해보면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노동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만한 의식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학생들은 방학 석 달 동안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을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데 이거 참 괜찮습디다. 그곳 사회 제도가 또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학 때가 되면 어떤 업체에서도 학생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노동을 하건, 무엇을 하건 괜찮은데 나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름에 비키니나 입고 해수욕장에서 놀지 말고, 일손 모자라는 농촌에 가서 그곳 일도 도와주고 우등의식을 없애버리세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교만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난 지금도 하수도 고쳐 달라면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구두를 닦자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닦습니까. 구두 닦는 아이한테 시키세요” 하니 그의 말이 “일에 무슨 귀천이 있느냐. 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랬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귀한 일, 어떡하면 천한 일, 그게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는 사상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나오지요. 미국의 농장에서 일꾼을 두고 농사짓는 것 못 보았어요. 다 자기손으로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집니다. 일 속에서 나서, 일 속에서 죽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못하면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일 속에서 기쁨을 가질 때 그게 곧 민주인 것입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그게 즐거우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즉 일 속에서 우등 의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선생이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학생을 깨우는 것이고, 그게 학생과 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내 입장은 첫째 배우는 것과 둘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생각 없이는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권의식이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어라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야 이삭이 수그러지는 것과 같이 사람은 성숙해져야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가고만 싶어 하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풍선 같아요. 겸손이란 속이 차는 것입니다. 역시 내려가기 위해서는 속이 가득차야 내려가지 그냥은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알이 차는 겁니다. 알이 차야 내려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풍선처럼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저 잘난 맛에 사는데 그게 쉽게 내려갑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에서 살려고 그러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갔다가 도로 오려고 하거나 시골에서 서울 왔다가 도로 시골가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 성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버리고 땅에 와서 살고, 땅에 사는 것만 아니라 다시 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유태사람들이 교만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대표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오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 올려 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뽑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왜 뽑혔는지를 아니까. 그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서 하신 일이 인자(人子)가 되신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주신 겁니다.

특권계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맨 처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을 홍보면 안 된다. 남을 천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러 왔지, 부리려고 온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벌리시고 발을 씻겨 주셔서 그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 주셨다.” 이것이 모든 특권계급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다음에 시집가서 자기는 의자에 딱 앉아서 가정부만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가정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녀에게만 시킬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가정부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가정부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녀를 잘 살게 해 주려고 애를 쓰면 그 가정부도 우리를 잘 살게 해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미국의 포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지만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불경기 때 다른 사람들이 미쳐 생각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 주었어요. 그러자 노동자들은 결사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불황을 겪었지만 그 혼자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에게 잘해야만 나도 잘 사는 거지, 남을 못 살게 하면 나도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게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찾아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을지 애쓰면 그 이웃도 내가 잘 살 수 있게 애를 쓸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교만한 사람의 문제는 고립도 고립이지만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벌써 마음이 다 찼으니까 속이 비지를 않아요.

물건을 받으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릇이 가득 차 있기에 다른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우리들 마음을 텅 비워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복이 받아 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역周易에 지산겸地山謙이라는 괘가 있습니다. 땅 속에 산이 들어가 있고, 언제나 자기를 낮추어서 비게 하고,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차 있으면 그것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하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인지 뭐 별게 있습니까. 계속 모른다, 그 겁니다. 10시 성경반에, 내가 배워야 될 선생님들이 나에게 배워야겠다고 오십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배울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니 요한이 “아!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받으러 오십니까” 하니 예수님 말씀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무엇 같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선생님이 오셔서 나에게 배우겠다고 앓을 때면 꼭 예수님께 세례 주던 것 같아요. 역시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여기 학생들은 내게 배워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 어른들은 다 내가 배워야 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 와서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라는 형식이건, 찬송가라는 형식이건, 무슨 형식이건 좋아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지 그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6. 영원을 사는 사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함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 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 노자 · 노자익 강해

김홍호 저 | 사색 刊 | 48,000원



이 책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7회 강의한 내용이다. 교재는 권재 임희일의 『노자권재구의』이고, 부교재는 초형의 『노자익』과 저자의 보충자료들이다. 책의 구성은 노자 도덕경의 해석과 노자구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저자가 발췌한 『노자익』(초형)에 나오는 주해들 및 기타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형의 노자주 발췌 등, 종래의 노자 해설들을 집대성하여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을 한 줄 한 줄씩 풀이하며 강의해나간 내용을 녹취하여 강의의 현장감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편집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이야기를 듣듯이 편하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刊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